



트라우마 통역을 위한 가이드

- 호모인테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국가트라우마센터
- 보건복지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하여

호모인테르는?

난민 이주민 지원 단체의 실무자와 통역인을 위해 상호문화철학과 심리정서적 측면을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통역 교육, 심리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신통방통교육워크숍





문화다양성과 인권

랄랄라총전소[3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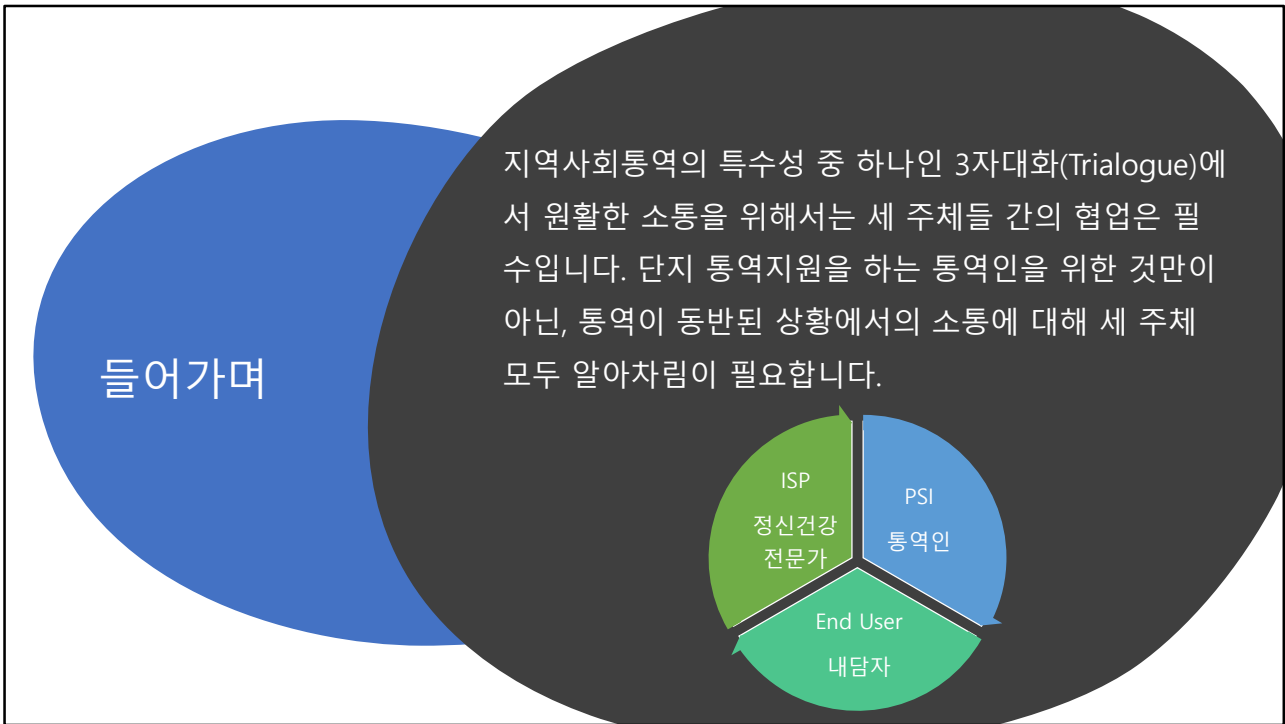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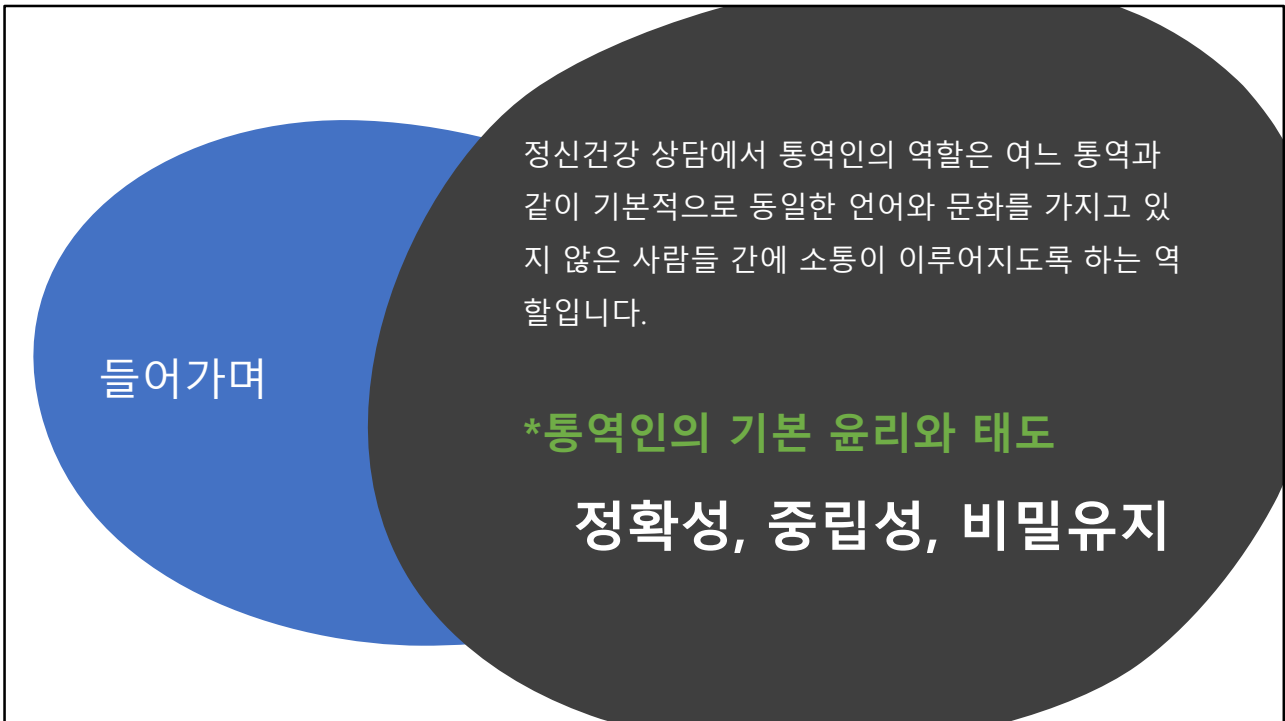


본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가며...
- 정신건강통역 상황에서의 실천 가이드
- 트라우마와 통역: 트라우마 통역 시 고려사항
- 한 장 요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3자대화[Trialogue]





들어가며

정신건강 상담에서 통역인의 역할은 어느 통역과 같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통역인의 기본 윤리와 태도**

정확성, 중립성, 비밀유지



#정신건강통역



들어가며

심리적 고통과 이에 대한 완화를 다루게 될
정신건강통역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적 삶의 맥락,**
의미의 주관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기에 통역에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역 프로세스에 따른 실천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정신건강통역 상황에서의 실천 가이드



전[前]

1. 통역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
통역인에게 사전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前]

2. 통역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내용(폭력,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전[前]

3. 발화속도, 방식 등 구체적 진행방식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협업, 조율한다.

(예. 효과적 통역 길이, 질문 또는 통역인과 정신건강전문가 사이 소통이 필요한 경우, 등)

전[前]

4. 통역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차린다

(신체, 정서 등)

중 & 후 [中 & 後]

5. 안내한다.

(통역인 소개, 윤리, 역할 등)

*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형성

중 & 후 [中 & 後]

6. 효과적인 소통 환경 조성하기.

(세팅, 1인칭 사용, 쉬운 표현 사용,

속도 체크 등)

중 & 후 [中 & 後]

7. 정확한 통역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떠한 (비)언어적 표현들은 다르게
이해되고, 정확하게 옮겨지기 어려움을
이해한다.

중 & 후 [中 & 後]

8. 정리의 시간 가진다.
(사례 이해를 위한 내용,
통역인의 심리적 어려움 확인 등)

트라우마와 통역

트라우마와 통역[1]

1. 트라우마 생존자 통역 시 고려할 사항:
안전한 통역 환경 조성

“사람들이 대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특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들의 힘과 통제력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통역사들은 한 사람이 그들의 통제감을 다시 확립하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인식의 회복을 통해 트라우마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Gonzalez, 2015)

Source: Trauma-informed Interpreting
(Administrative Office of Pennsylvania Courts
2018 and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Rape
2018)

트라우마와 통역[2]

2. 트라우마 생존자 통역 시 고려할 사항: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

“통역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어려운 내용에 관여하게 됩니다. 통역사들은 정보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처리하고, 의미를 추출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충실히 해석한 다음, 대부분 1인칭으로 내용을 음성어나 수어로 전달합니다”(Bancroft et al., n.d.).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통역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nzalez, 2015)

트라우마와 통역[3]

3. 대리외상(Vicarious Trauma) 완화: ABCs 기억하기(Gangsei, 2011)

- 알아차리기: 개인적 부족함 또는 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증언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
- 다음과 같은 신호에 주목하기: 정서적인 변화, 악몽, 두통 등
- 연결하기: 통역 이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 통역사 대리외상의 유의미한 감소 (Andert & Trites, 2014; Bancroft, 2016; Lor, 2012; Rhyne, 2010; Zenzino, 2013)
- 자기돌봄(Self-Care)

한 장 요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통역인을 위한 안내

참고문헌: 박재윤(2022). 상호문화중재 개념을 통한 한국
지역사회통역 개선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1. 통역의 목적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화속도, 방식 등 구체적 상담진행방식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조율한다.
3. 통역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차린다(신체, 정서 등).
4. 정서적 신뢰감의 바탕이 되는 자기 소개로 시작한다(통역인 소개, 윤리, 역할 등).
5. 효과적인 소통 환경 조성한다(효율적 통역을 위한 좌석배치, 1인칭 사용, 쉬운 표현 사용 등)
6. 정확한 통역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떠한 (비)언어적 표현들은 다르게 이해되고, 정확하게 옮겨지기 어려움을 이해한다.
7. 정리의 시간 가진다.

통역의뢰인(정신건강전문가)을 위한 안내
(ISO13611)

참고문헌: 박재윤(2022). 상호문화중재 개념을 통한 한국
지역사회통역 개선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1.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명확하고 적당한 속도로 발언해야 한다.
2. 내담자를 직접 보면서 말하고, 통역인에게는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말한다.
3. 통역인에게 비밀보장 서약에 서명하도록 한다.
4. 연속적으로 통역할 경우 최대 60분 후, 통역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거나, 통역인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피로는 정확성에 타격을 주고 품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5. 통역인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시 중지하며 진행하고, 정상적인 음성 속도가 권장된다.
6. 신체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를 인지해야 한다.
7. 문화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 통역인이 추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8. 적절한 좌석 배치와 같이 상황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9. 통역인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 통역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통역인이 진술을 마치도록 허용한다.
11. 통역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간섭, 방해 등을 인식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12. 통역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내용(폭력, 사망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한다.



본 영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호모인테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건강통역시 고려할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모인테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해 문화다양성과 언어인권의 측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통역 환경 구축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영상 내용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나 정신건강통역 시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Homointer138@gmail.com

